

국제건축세미나의 성과

UIA 스포츠, 레저, 관광세미나를 치르고—

趙聖烈/동 세미나 기획위원장, 큐빅디자인연구소장

1. 개관

작년 10월 서울과 동경에서 9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던 국제건축가연맹의 스포츠·레저·관광세미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국제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동구권을 포함하여 17개국이 참가한 국제회의로서 많은 건축인과 관련분야의 관심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루었다는 점에서 우리 建築史에 마크될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1988서울올림픽은 사상 최대의 제전으로 세계인을 놀라게 한 여러가지 기록을 남겼으며, 우리 국민의 결집된 역량과 우리의 국력을 나타내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1987년 영국 브라이턴에서 열린 국제건축가연맹(UIA) 총회에서 한국건축가협회는 스포츠, 레저, 관광에 대한 국제건축세미나의 개최를 제의하여 1988년 10월의 서울-동경 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 올림픽 개최 도시와 올림픽 건축에 관심이 있는 세계 각국 건축가들의 호응으로 큰 성과를 거둔 이번 세미나는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첫째는 올림픽 건축의 새 방향 모색으로서 거대한 올림픽 및 관련시설들은 보다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효율을 생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올림픽 시설의 사후 이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앞으로의 올림픽 건축의 방향에 대해 다목적(Multi Purpose) 적인 건축, 시설 자체의 융통성(Flexibility) 부여, 시설의 경제적 관리(Management)에 착안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는 스포츠+레저+문화가 적절히 조화된 시민생활 시설로서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면 의의로서는 동서 조화의 계기이다. 근대 세계문화를 주도해온 서구권 지식층은 제3세계인들에 대해 관습적으로 외면하거나 낮은 비중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친구가 되고 형제같이 지내기는 어려운 일이나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를 가지고 테이블 위에 마주 앉았을 때 폭넓은 이해와 우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서구권 대표단이 대거 서울에 온 이번 세미나는 인종, 국경, 체제를 초월하여 인간생활 환경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국제사회 속에서 동서 조화의 좋은 본을 보였다고 하겠다. 세미나는 18개국 건축가들이 서울, 동경에서 주제 발표를 하며 그중 12개국—한국, 일본, 스페인, 캐나다, 이집트, 소련, 서독, 동독, 영국, 불가리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의 대표가 서울에서 올림픽 및 도시 스포츠 시설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서울의 일정은 10월 24일, 25일 양일간 서울과 근교의 한국 고적과 토속 문화, 서울의 명소 및 올림픽 경기시설과 선수촌 등을 둘러보고 10월 26일 롯데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올림픽 및 스포츠 시설의 계획, 설계, 관리, 사후 용도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한국의 건축가 김종성씨(서울건축)의 서울올림픽 시설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가미야씨(일본)의 1964년 동계올림픽의 요요경기장에 대한 설계, 관리 및 사후용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가와구찌씨(Structural Engineer)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스포츠홀의 구조(Pentadome)에 대한 발표와 오르테고씨(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캐나다의 건축가 왕씨와 존슨씨의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시설의 설명과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및 1996년 토론토 올림픽 유치 계획안이 발표되었고, 고리쉬코프씨(소련)의 스포츠와 레저시설에 대한 소련의 현황이 소개되었다. 비머씨(동독)의 스포츠 및 체력 단련에 관한 국제정책과 지역단위의 시설설립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파라드씨(서독)의 기존 건물의 재이용과 민간 투자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과 Open Space 보존에 대한 토론에 이어 영국의 건축가 존씨의 스포츠 시설의 다목적 용도에 대한 계획과

설계지침의 발표로 서울의 세미나가 막을 내렸다. 서울세미나에 이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동경에서 레저와 관광에 관한 주제로 현지답사 및 세미나가 계속되었다. 동경세미나에서는 강건희 교수의 「신구의 공존」, 스위스의 미울리(B.Meuwly)의 환경 보존 측면에서의 스포츠, 레저, 관광시설의 방향, 무라마쥬(일본)의 역사유적 보존과 관광, 레스코브(B.Leskovec, 유고슬라비아)의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레저센터 계획, 랑귀로브(V.Ranguelov, 불가리아)의 불가리아 흑해에서의 스포츠, 레저가 발표되었고 이어서 왕(H.Wang, 캐나다), 쉘론(M.Shilon, 이스라엘), 키스(I.Kiss, 헝가리)의 레저·투어리즘에 관한 각국의 슬라이드 및 비디오쇼가 있었다. 발표자중에서 핀란드의 살미넨(P.Salminen)과 일본의 이소자키(A.Isozaki)는 자기 작품의 슬라이드 쇼를 통해 레저·관광시설의 새로운 모색을 보여주기도 했다. '88서울올림픽 문화예술 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이 세미나의 페어웰리셉션은 10월 26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박세직 위원장이 호스트가 되어 석별의 아쉬움을 달래는 잊을 수 없는 파티가 있었고 10월 28일 동경에서는 신 일본건축가협회 기다다이 회장의 환영 만찬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갠도단개도 참석하여 이 세미나를 더욱 빛내 주었다.

2. 회의진행

유.아이.에이 스포츠, 레저 관광 국제세미나의 진행은 준비기간과 회의진행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9일간의 회의를 위해 회의 준비기간은 9개월이나 걸렸으니 국제회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번 국제회의는 한국건축가협회와 일본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서울과 동경에서 연속으로 열린다는 것 때문에 더욱



▲ 올림픽조직위원장 주치 환승리셉션

번거로움이 따르게 되었다. 서울회의는 1988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올림픽 건축」을 주제로, 동경회의는 1988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레저, 관광」을 주제로 열렸다.

준비기간의 첫 단계에서는 공동주최 협의로서 기본계획에 속하는 회의일정, 장소, 주제, 발표자, 프로그램, 예산계획 및 분담, 회의유인물 인쇄계획, 디자인 등의 결정이다. 1988년 2월 23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세번의 공동추진협회의와 수십차례의 팩시밀리, 국제전화 등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었다. 두번째 단계는 회의 관계 제작물의 준비이다. 리플렛, 포스터, 프로그램, 신청서, 세미나 발표문의 출판,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 표시물 등이 원고 취합, 디자인의 결정과정을 거쳐 완성되기까지 9개월이 소요되었다.

회의는 관광 및 현지답사, 세미나 그리고 국제건축가연맹 워킹 그룹회의의 세가지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에서는 전문문화의 관광, 올림픽시설 답사, 세미나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세미나, 동경의 스포츠, 레저, 관광, 마지막 2일간은 교토, 나라, 니꼬, 하꼬네 등의 관광 프로그램이 선택적으로 실시되었다. 회의준비와 회의진행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회의진행 개요

세미나 주제

서울

- 올림픽과 건축
오늘날의 올림픽시설 개선방향
올림픽 시설의 관리
- 올림픽후의 사용
올림픽 기간중과 행사후의 효율적 관리
- 올림픽건축의 새로운 방향
새로운 아이디어
올림픽 시설의 소개

동경

- 주거근린 레저시설
- 1일 생활권내에서의 레저시설
- 단기체류를 위한 레저와 여행시설
- 장기체류를 위한 레저와 여행시설

발표자

G. Gorlyshkov	(소 련)
G. John	(영 국)
G. Ortego	(스 페 인)
H. Wong	(캐 나 다)
K. Kamiya	(일 본)
M. Kawaguchi	(일 본)
J. Kimm	(한 국)
S. Aboul-Naga	(이 집 트)
V. Ranguelov	(불 가 리 아)
B. Leskevec	(유고슬라비아)
C. K. Leong	(싱 가 폴)
Shlminen	(핀 랜 드)
B. Meuwly	(스 위 스)
Y. Shibata	(일 본)
A. Isozaki	(일 본)
Y. Hamano	(일 본)
T. Muramatsu	(일 본)
K. Kang	(한 국)
M. Wimmer	(동 독)
I. Kiss	(헝 가 리)

올림픽시설 전시회

기간 및 장소 : 1988년 10월 26일 롯데호텔

1988년 11월 21~29일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개요 : '88서울올림픽 건축, 시설물의
집약전시
'88서울올림픽을 위한 각종 기념물,
조각공원, 상징조형물
내용 : 잠실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국제방송센터, 올림픽 선수기자촌,
조형물

회의일정

서울

- 10월 23일(일) - 등록
- 10월 24일(월)
관광 I - 전문문화(오전)
관광 II - 올림픽시설(오후)
UIA Sports, Leisure &
Tourism Work Group 회원 및
세미나추진위원회

- 10월 25일(화)
관광-수원성(오전)
용주사, 용건능, 민속촌(오후)
- 10월 26일(수)
세미나(오전), 세미나(오후)
올림픽조직위원장 주치 환승리셉션
- 일본
- 10월 27일(목)
출국(동경행) 환영리셉션
- 10월 28일(금)
UIA Sports, Leisure & Tourism
Work Group 회의, 세미나
- 10월 29일(토)
세미나, 카테일 파티
- 10월 30일(일)
관광 III - 동경관광, 스기야카파티
- 10월 31일(월)
관광(자비부담) 교토, 나라, 니꼬, 하꼬네

3. 결어

건축의 국제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치르게 된 것은 서울올림픽의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서간장 완화의 시류를 타고 체제가 다른 공산권에서 6개국 대표단이 참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제교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지고 성숙해질 기반을 조성한 셈이 된다.

한국건축가협회는 이런 규모의 행사를 처음 치루었지만 그동안 축적한 우리의 역량을 과시할 만큼 조직과 준비에 있어서 철저했으며, 빈틈없이 잘했다는 참가국대표들의 호평을 얻은 것이다.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주최국의 열의와 힘의 결집이라고 할 수 있다. 잘해야겠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땀물을 뺀겨야 한다 등의 마음들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국제행사에서 늘상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제감각과 커뮤니케이션의 빈곤이다.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고 주도하는 경우에는 그 두가지 사항이 더욱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사 추진과 진행조직에 있어서 폭넓은 인선과 임무의 부여를 그 어느때 보다도 실질적으로 했다는 것을 명기해 두고 싶다. 이번 행사는 서울에서 대부분을 준비했고 일본은 따라오는 입장에 있었으나 양국단체가 조화를 이루어 협력을 잘했다. 서울과 동경에서 연속으로 개최된 이 회의는 서구권 참가단체에게는 양국의 분위기 차가 뚜렷했다는 후문이 있었다. 그것은 회의준비, 회의진행에 있어서 진지함의 차이라고 보겠다. 우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와 인종의 차를 극복하고 동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았고, 건축을 통한 인간환경의 개선이라고 하는 공동 관심사를 폭넓게 토의할 수 있는 장의 운영에 대한 값진 경험을 했다고 하겠다. (뒷면에 준비일정)

■ 준비일정

추진위원회 구성 1988. 2. 16
 공동주최협의회 1988. 2. 23

항 목	업 무 명	시행기간	비고
1. 사무국 개설	1. 사무 진행자 결정 2. Correspondent 채용 결정 3. Information 및 Tour Guide 채용 4. 사무기기 입차 계약 5. 예산결정	4/10 5/10 7/30 5/15 4/10	
2. 등록요건 결정	1. 등록비 결정 2. 참가자 자격 결정 3. 신청요건 결정 4. 등록기간 결정	4/15 4/15 4/15	
3. 세미나	1. 테마확정 2. 리포터 선정 및 의뢰(국내, 국외) 3. 프로그램 확정 4. 리포트 수집 5. 리포트 번역자 수배 및 계약 6. 동시통역자 수배 계약 6. 동시통역자 자료 인계 7 8. 세미나 진행자 Premeeting 9. 세미나장 Lay Out 결정 10. Place Card용 명단작성 11. Place Card필결 완료 12. Projector, Mic. 동시통역설비 확인 13. 진행인원 배치계획수립 및 배치 14. 행사장 Setting 및 확인 15. 세미나 진행 보조	3/31 4/30 5/10 국내 5/30 국외 6/30 국내 6/5 국외 7/5 5/20 7/15 9/20 9/10 9/15 9/25 9/30 9/15 10/25 10/26	
4. 홍 보	1. 홍보 계획 수립회의(Publicity) 계획 및 인쇄물 사양 결정 2. Mass Midia 선정(국내·외) 3. 기자 섭외 4. 홍보자료 취합 5. 홍보자료 번역 6. 홍보자료 제공 개시 7. 등록 및 안내 리플렛, 신청서, 포스터, 봉투, 인쇄물 도안확정 8. 등록 및 안내 리플렛 교정인쇄 9. 회의록 디자인 10. ID Card 디자인 교정 인쇄 11. 종합 브로슈어 내용결정 12. 종합 브로슈어 도안확정 13. 종합 브로슈어용 Copy작성번역 14. 교정, 인쇄	5/1 5/1 5/15 5/10 5/15 5/15 5/15 5/18 4/20 8/30 7/15 7/15 7/30 8/30	
기타 인쇄물	15. 초청장 및 봉투 도안 및 인쇄 16. 초청자 명찰 도안 인쇄 17. 티켓 도안(종류별)교정 인쇄	9/15 9/20 9/10	
제 작 물	18. 현판 Lay Out 19. 현수막 Lay Out 20. Binder Lay Out 21. Name Tag 사양 결정 22. 현판, 현수막 제작 의뢰 23. Binder, Name Tag제작 의뢰 24. 제작품 검수 25. 제작품 납품	8/30 8/30 8/30 8/30 9/1 9/1 9/7 9/15	
5. 섭 의	1. 총행사 계획 작성 2. 총행사 계획 작성 관계기관 제출 3. 총행사 계획 작성 심의필 4. 예방처설의(협조, 공문발송, 확인)	3/30 4/10 4/20 5/20	
리포터선정	1. 리포터 선정회의 2. 협조 공문작성 발송 3. 회신 수납 4. 리포터 제출 독려	4/15 4/10 4/30 4/20 5/20	
영접, 출영	1. 계획수립 2. 영접자 확인, 출연자 3. Transportation 확정 영접 4. 영접 스케줄 재통보 5. 영접 Transportation 재확인 6. 보조자 지정 7. 출영 스케줄 재통보 8. 출영 Transportation 9. 보조자지정	10/1 10/5 10/22 10/22 10/20 10/26 10/26 10/24	

항 목	작 업 명	시행기간	비고
6. 전 시 회	1. 전시물 소재 자료 입수 2. 전시장소 답사 결정 3. 전시 Lay Out 결정 4. Pannel 명제자료 번역의뢰 5. Pannel 명제번역 완료 6. 명제판 Lay Out 결정 7. 명제표 인쇄 의뢰, 인쇄 완료 8. 명제 Pannel 제작 9. 전시 Pannel 입수 10. 전시장 작업	6/30 7/3 7/20 7/15 7/30 8/31 10/23 10/23	
7. 초청참석인사 확정	1. 초청 대상자 선정 (세미나, 연회, Tour) 2. 초청자 List Up 3. 참석자 확정 4. 참석자분류 5. 참석자 분류 List Up	5/10 5/30 8/5 8/10 8/15	
8.	1. 방문처 확정 2. Schedule 작성 3. 협조의뢰 4. 수행자결정 5. 예산확정 6. Tour참가 인원 확정 7. Transportation 8. 점심식사 장소 수배 9. 점심식사 방법결정 10. 점심식사 가계약(?) 11. 점심식사 예약 확인 12. 등록일 참가신청 접수 13. 참가자 재조정 14. 관련업무자에게 인원 재통보 15. 제반사항 재 Confirm	5/10 5/10 4/30 5/10 5/10 8/5 5/10 5/10 5/10 5/10 8/10 10/23 10/23 10/23	
9. 수 송	1. 수송 스케줄 작성 2. 수송 차량 수배 3. 수송예산 확정 4. 차량계약 실시 5. 수송 담당자 선정 6. 수송 스케줄 Confirm/Paily	5/25 5/26 5/30 5/30 10/10 10/23 -27	
10. 예산 계획	1. 세미나 예산 확정 2. 전시회예산 확정 3. Tour 예산 확정 4. 연회, 식사 예산 확정 5. 인쇄 예산 확정 6. 제작물 예산 확정 7. 번역 예산 확정 8. 동시통역 예산 확정 9. 홍보예산 확정 10. 섭외 예산 확정 11. 인건비 예산 확정 12. 통신 예산 확정 13. 사무비 예산 확정 14. 회의비 예산 확정 15. 업무추진비 예산 확정 16. 체제비 예산 확정 17. 한국측 주재 발표자 원고료	4/20 6/30 5/10 4/20 5/15 5/15 5/10 5/20 5/10 5/10 4/20 5/10 4/15 4/15 4/15 5/5 5/5	
제 정	1. 자체 조달계획 확정 2. 해당자 협조의뢰 3. 대금수금 완료 4. 정부지원 섭외 마감 5. 광고 섭외 마감 (종합브로슈어에 게재) 6. 스폰서 섭외마감 (종합브로슈어에 게재) 7. 재정 계획결산 8. 재정 적자대책 수립	4/8 4/11 4/21 7/15 7/15 7/16 7/16	
기 록	1. 국내 리포트 번역의뢰 2. 국내 리포트 번역완료 3. 해외리포터 번역의뢰 4. 해외리포터 번역완료 5. 리포트 인쇄 사양결정 6. 리포트 인쇄 의뢰 7. 리포트 교정 인쇄 완료 8. 사진기자 선정 의뢰 9. 녹음(호텔의뢰)	5/1 5/20 7/1 7/20 5/15 7/21 8/20 9/10 9/10	